

우상호 “尹 도어스테핑 없앤 건 지나쳐…코로나는 핑계”

“언론 정기적 만나야지 중단할 필요는…” 첩보 삭제 의혹에 “원본 남아 있지 않나” “국회 정상화 후 국방·정보위서 따질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중단한 데 대해 “정제된 언어를 쓰면 몰라도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얘기해서 어느 수준으로, 어느 횟수로 하는지를 정비하는 게 좋겠다. 불리하면 안 하고 유리한 일 있을 때 하는 건 원칙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두달 만에 30%대로 급락한 여론조사가 잇따른 시점에 공교롭게도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일을 에둘러 꼬집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중단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선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여러 실연들이 지지를 저하

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거 같은데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하는 게 솔직하지 코로나 때문이면 근절 될 때까지는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건 도어스테핑 중단 선언이지 않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단까지 하실 건 뭐가 있느냐”며 “정기적으로 (언론과) 만나서 본인 생각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후 매 주말마다 정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권인 국민의힘의 하락세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데 대해선 “민생경제에 올인하면서 국민을 봉사하겠다는 태도가 빨리 반영되는 걸로 보인다”면서도 “여론조사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 민주당의 선거 패배 이후 변화하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건 감사하다. 겸손히 해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서해상 피살 공무원 ‘월북 첩보’ 삭제 의혹에 대해선 “이 문제의 본질은 정보의 원본이 삭제됐느냐. 그건 국기문란”이라며 “원본 삭제라면 심각한 문제이나 군 당국에서는 원본은 남아 있다고 하니 삭제 논란이 아니다. 접근을 탈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군 당국도 원본 삭제가 안 됐다고 하면 이 논란은 끝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첩보파일 원본 삭제 의혹에 대해선 “원본 삭제는 위협하다. 대통령 기록물도 그렇다. 과거 삭제됐다고 주장하던 (참여정부 시절) NLL(북방한계선 대화록)도 복사본이 삭제된 것을 삭제라 주장했다”며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 하 군 당국이 원본이 남아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관련돼 있어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비공개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따져볼 문제다. 반드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소집되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상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보도를 보면 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어서 북측에서 범죄자 인도요청이라고



들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살인이 이뤄져서 귀순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범죄로 봐서 북송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내가 뭐라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과의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과 관련해선 “당이 여러가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정은 이해하지만 내부 사정”이라며 “당장

경제, 민생 위기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 협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정상화)를 국민의힘이 수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런 측면에서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수습은 수습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기자

광주시의회 의장에 정무창 선출…부의장 심철의·이귀순



광주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창(59·광산2) 의원, 제1 부의장에 재선의 같은 당 심철의(50·서구4) 의원, 제2 부의장에 이귀순(44·여·광산4)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왼쪽부터 정무창 의장, 심철의 부의장, 이귀순 부의장.

광주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무창(59·광산2)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재선의 같은 당 심철의(50·서구4) 의원과 이귀순(44·여·광산4)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재적 의원 23명이 투표해 찬성 23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과반을 넘어 의장에 당선됐다.

정 의장은 재선 시의원으로서 직전 8대 의회에서 운영위원장과 교육문화위원, 인사정문 특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 의장은 “성숙한 의회 운영으로 대의기관인 의회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도 잘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심 의원과 이 의원이 각각 18표와 22표의 과반 찬성표를 얻어 각각 제1, 제2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심 부의장은 전남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7대 의회에서 전반기 운영위원장과 후반기 교육문화·환경복지·예산결산·윤리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이 부의장은 호남대 행정학과를 나온 뒤 신가마을교육공동체인 ‘행복어울림’ 대표 등을 거쳐 정계에 입문, 8대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이슬기자

민주 “국민의힘, 당권투쟁 자중하고 국회 정상화 나서야”

“이준석 정계 이후 내홍 끝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대표 정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당권투쟁을 자중하고 비상경제와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원구성 협상 등 국회 정상화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언제쯤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관심을 보일 건가”라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치 정계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내홍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지도체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표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전당대회가, 당헌 당규상 불가능해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정계 결정에 불복 의사를 피력하며 전면전을 예고하는 가운데 윤핵관으로 뽑히는 장제원 의원은 대규모 지지 모임을 가지며 세 과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 가운데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 참사, 비선인사 논란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는 고조되고, 코로나마저 재유행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은 안중에도 없는 여당이 당면한 위기를 책임있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여당의 본분이 무엇인지 묻겠다. 국민의힘이 당권 싸움에 골몰하는 동안 경제와 민생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